

ART ON^o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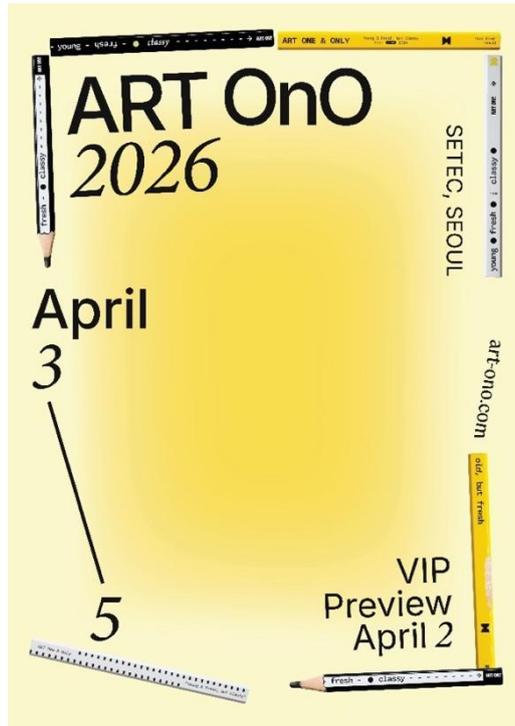
INTERNATIONAL ART FAIR IN SEOUL

PRESS KIT

TABLE OF CONTENTS

01	ART OnO 2026 행사 개요
02	참여 전시자 소개
03	주요 프로그램
04	파트너

01. ART OnO 2026 행사 개요



아트오앤오 2026 공식 포스터 사진제공 | 아트오앤오

	일자	시간	입장료
PRESS 프리뷰 THE ONE	4월 2일 (목)	11:00 ~ 19:00	* PRESS, THE ONE 패스 소지자만 입장 가능
VIP 오픈	4월 2일 (목) 4월 3-4일 (금-토) 4월 5일 (일)	12:00 ~ 19:00 11:00 ~ 19:00 11:00 ~ 18:00	150,000원 * VIP 패스 소지자만 입장 가능
일반 오픈	4월 3-4일 (금-토) 4월 5일 (일)	12:00 ~ 19:00 11:00 ~ 18:00	일반 50,000원 학생 25,000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예술인 패스 소지자, 미술협회 회원 25,000원

4월, 서울 SETEC에서 ART OnO 2026의 세 번째 여정

- 전 세계 다양한 도시의 갤러리와 미술관이 함께 펼치는 다층적 아트 경험
- 이미징부터 블루칩까지, 상업 갤러리와 비영리 기관이 함께 선보이는 글로벌 아트 스펙트럼
- 비영리 미술기관까지 품은 아트오앤오, 서울을 동시대 미술 허브로
- Beyond the Fair: 아트오앤오 2026, 미술기관의 참여로 확장된 문화 플랫폼
- 단순한 세일즈를 넘어, 관람객에게 완성도 높은 전시 형식의 미술 경험을 제공하는 아트 플랫폼
- 컬렉터를 위한 대체로운 VIP Program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
- 작품구매, 전시, 네트워킹까지 전시를 넘어 경험으로...아트오앤오 2026 확장된 프로그램 구성

2026년 4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서울 SETEC에서 개최되는 아트오앤오 2026은 'One and Only'라는 이름처럼,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예술 경험을 선사하는 국제 아트페어다. 2026년 4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서울 SETEC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갤러리들이 참여해 동시대 미술의 폭넓은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IAH (이아), JECZA Gallery (예차 갤러리), Konstantin Chaykin (콘스탄틴 샤이킨), Makasiini Contemporary (마카시니 컨템포러리), Rangi Gallery (란기 갤러리), TUCK BANGKOK(턱 방콕)은 올해 처음 참여하는 갤러리다. 이들은 아트오앤오 측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갤러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반영한 밀도 높은 큐레이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 동유럽, 북유럽 등 비교적 국내에서 접점이 적었던 지역의 갤러리들이 참여함으로써, 관람객들은 기존 아트페어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시각과 미학적 실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비영리 미술기관들의 참여다. **송은**을 비롯해 다수의 미술기관들이 이번 페어에 함께하며, 기존 아트 페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구조를 만들어낸다. 국공립 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그리고 사립 미술기관인 **송은, 아트사이트 소제, 챕터투(Chapter II)** 등이 참여해 상업 중심의 아트페어와 기관 전시가 공존하는 새로운 장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해외 미술기관인 **X Museum, fibre/áunn museum, Schein Space**도 참여하며 국제적 교류의 폭을 확장한다. 특히 **Schein Space**는 영상 작품과 더불어 퍼포먼스 아티스트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작품 전시 중심의 아트페어에서 비교적 드물게 접할 수 있는 퍼포먼스 아트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마련한다.

이처럼 비영리 기관 그리고 퍼포먼스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트오앤오 2026은 단순한 작품 거래의 장을 넘어 전시와 담론, 퍼포먼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보다 입체적인 예술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미술관 및 재단이 함께하며, 상업 갤러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아트페어와는 다른 결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아트페어는 작품 거래와 시장 중심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반면, 미술관과 같은 기관은 연구와 전시 기획, 공공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축이 아트오앤오라는 플랫폼에서 만나 동시대 미술을 보다 다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아트페어는 갤러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판매 중심 플랫폼'인 반면, 미술관과 같은 비영리 기관은 공공성과 연구, 전시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상이한 운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트오앤오 2026은 이러한 경계를 유연하게 확장하며, 비영리 기관과 상업 갤러리가 동일한 맥락 안에서 공존하는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동시대 미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시장, 제도, 실험, 담론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교차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과 같은 기관의 참여는 마켓의 기능이 최우선으로 강조되어 온 타 아트페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기획적 깊이와 담론을 더하며, 관람객들에게 보다 확장된 미술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아트오앤오가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동시대 미술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아트오앤오는 “비영리 기관과 작가 그리고 컬렉터가 하나의 장 안에서 만나는 구조는 흔치 않은 시도”라며, “올해는 특히 이러한 지점이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아트페어의 기능을 확장시키며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은 전라남도의 문화예술 거점 기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지역성과 국제적 흐름을 연결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권승찬(Gwon Seungchan), 에코 누그로호(Eko Nugroho), 마리안토(Maryanto) 세 작가의 작업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권승찬과 에코 누그로호는 2025년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에 참여한 작가들이다. 전남 장흥 출신의 권승찬은 특정 장소와 사건에 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기억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 ‘무기력한 풍경’은 한국전쟁 당시 전남 장흥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작업으로, 역사적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의 현재 풍경을 통해 지역에 잠재된 기억과 잊힌 진실을 환기한다.

수원시립미술관 (Suwon Museum of Art)은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소개하며 지역과 국제 미술계를 연결하는 공공 미술기관으로, 회화·조각·영상·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현대미술의 확장된 가능성을 탐구해 왔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정정엽, 김순기, 성능경, 어윈 올라프(Erwin Olaf), 에르빈 부름(Erwin Wurm), 클레어 폰텐(Claire Fontaine), 홍이현숙, 조영주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는 전시를 구성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작가 에르빈 부름(Erwin Wurm)의 작업은 관람객의 참여와 행위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체험적 요소를 지닌 작업으로, 조각의 개념을 일상적 사물과 신체의 관계 속에서 확장해 온 작가의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수원시립미술관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세대와 매체를 아우르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은 (SONGEUN)은 송은미술대상과 국내외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작가를 지원하고 국제 교류를 이어가며 비영리 미술기관으로서 동시대 미술에 대한 전시와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 김지선 작가의 솔로 부스와 안정주 작가의 미디어 작업을 중심으로 한 솔로 부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선 작가의 작업은 회화를 기반으로 하되, 벽면에 설치되지 않는 구조를 통해 공간 안에서 독립적인 설치 형식으로 제시되며, 매체적 경계를 확장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안정주 작가의 부스는 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미디어 기반 작업이 전시 환경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엑스 뮤지엄 (X Museum)은 동시대 디지털 아트와 가능성을 연구하고 확장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이다. 중국 베이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예술가와 다양한 문화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및 미디어 기반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중국 디지털 아티스트 Rui Huang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루이 황은 가상 시스템과 인간의 인식, 그리고 디지털 문명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수학적 질서와 인간의 관찰, 미디어 서사가 교차하는 사변적 디지털 풍경을 통해 동시대 디지털 환경을 사유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트사이트 소제 (ARTSITE SOJE)는 전시와 실험적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소개해 온 대전 기반의 예술 기관이다. 예술가들의 실험적 시도와 매체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담론을 제시해 왔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장세희의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뉴미디어, 설치, 필름, 사운드 디자인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디지털 미디어와 아날로그 오브제, 공간 설치를 결합한 작업을 통해 움직임과 이미지의 관계를 탐구한다.

챕터투 (CHAPTER II)는 노은주, 정희승, 이의성, 조호영 등의 작가가 참여하는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간극에 주목한다. 참여 작가들은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대상이 인식되고 기록되며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순간들을 탐구한다. 노은주는 드로잉, 3D 모델링,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회화를 구성하며, 도시 공간 속에서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사물과 장면을 통해 생성과 소멸 사이의 불확정적인 상태를 탐구한다. 정희승은 사진을 통해 대상의 의미와 인식의 가능성을 탐색해 온 작가로, 대상의 배열과 구성, 공간과 시간의 변주를 통해 고정된 의미를 벗어난 이미지의 잠재적 해석을 제시한다. 이의성은 노동과 이동,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시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비미술적 재료와 조각적 구조를 통해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차이를 시각화한다. 조호영은 일상 속

반복되는 행위와 감각의 구조에 주목하며, 사물의 움직임과 물리적 현상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감각과 측정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지닌 작가의 작업은 고정된 결과나 의미를 제시하기보다 생성과 소멸, 감각과 기록, 경험과 인식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이의 순간’을 드러낸다.

파이버/아운 뮤지엄 (fibre/áunn museum)은 중국 상하이를 기반으로 현대미술과 패션, 디자인, 교육,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플랫폼으로, 중국 주요 도시와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왔다.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상하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Zhang Ying의 설치 작품을 소개한다. 작가는 수성 매체를 중심으로 작업하면서 디지털 페인팅과 조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그의 작업은 동시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심리적 긴장을 가볍지만 사유적인 시각 언어로 풀어내며,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미묘한 감각을 탐구한다.

란기 갤러리 (Rangi Gallery)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갤러리로, 아트오앤오를 통해 아시아 무대에 처음 소개된다. 유럽이나 북미에 지점을 둔 네트워크형 갤러리와 달리, 아프리카 대륙 현지에서 직접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례로, 동시대 아프리카 미술의 지역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작가들을 아시아 관객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참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프로젝트로, 갤러리의 프로그램이 아시아 관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첫 계기가 될 예정이다.

AISHO (아이쇼)는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갤러리로,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들과 협업하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미술 시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여 왔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하비에르 카예하(Javier Calleja), 사토 마사키(Masaki Sato), 미토베 나나에(Nanae Mitobe) 등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하비에르 카예하는 특유의 단순하고 유머러스한 캐릭터 이미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감정과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해 온 작가로, 회화와 조각, 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창적인 시각 세계를 구축해 왔다. 사토 마사키는 색채와 형태의 조합을 통해 감각적인 화면을 구성하며 회화의 물질성과 시각적 리듬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토베 나나에는 역사적 이미지와 대중문화의 요소를 결합한 회화를 통해 인물과 정체성, 기억의 층위를 탐구하며 동시대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차 갤러리 (JECZA Gallery)는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갤러리 중 하나로, 동유럽 현대미술의 역사적 흐름을 국제 무대에 소개해왔다. 이번 아트오앤오에서는 Genti Korini, Paul Robas, Iosif Kiraly 등 주요 작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회화, 드로잉, 조각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참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프로젝트로, 동유럽 현대미술의 지역적 맥락을 아시아 관객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아트 (Gana Art)는 1983년 서울에서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갤러리로, 작가 발굴과 국제 협업을 통해 폭넓은 프로그램을 전개해왔다. 이번 아트오앤오에서는 일본 작가 Kawauchi Rikako의 솔로 부스를 선보인다. 작가는 신체적 경험과 음식에 대한 감각적 탐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며, 거침없는 필치와 몰입도 높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니콜라스 크루프 (Nicolas Krupp)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현대미술 갤러리로, 설치와 개념미술을 포함한 실험적인 전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왔다.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국제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확장된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인터넷 기반 미디어 작업을 이어온 Monica Studer와 Christoph van den Berg 아티스트 듀오의 참여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역사의 맥락을 환기하며, 이번 아트오앤오 기간 중 작가들이 서울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갤러리바톤 (Gallery Baton)은 서울 기반의 갤러리로 아트오앤오에는 3번째 참여하게 된다. 갤러리바톤은 비영리 전시 공간이자 아티스트 레지던시인 ‘챕터투(Chapter II)’를 공동 설립하여, 한국의 신진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며 예술가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예술 환경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참여 작가로는 사물의 모호함을 캔버스에 담은 노은주, 상반된 대상의 경계를 신비롭게 담아내는 이재석, 개념적 회화를 통해 감각적 풍경을 탐구하는 빈우혁이 있다.

마카시니 컨템포러리 (Makasiini Contemporary)는 핀란드 헬싱키를 기반으로 2016년 설립된 갤러리로, 국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 시간 기반 매체를 포함한 전시를 기획해왔다. 최근 헬싱키 외 추가 전시 공간을 개관하며 운영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지역 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미사코 앤 로젠 (MISAKO & ROSEN)은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 갤러리로, 개념적 회화와 조각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작가군을 소개해왔다. 일본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서구 미술계 간의 교차 지점을 형성해온 갤러리로 평가받으며, 동시대 회화 및 조각의 실험적 흐름을 반영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회화 매체를 동시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가군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온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는 Will Rogan의 솔로부스를 통해 오브제와 공간적 요소를 결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레이지 마이크 (Lazy Mike)는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갤러리로, 러시아 및 인접 지역의 동시대 미술을 국제 무대에 소개해 왔다. 국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동유럽 아트 신을 조명하며, 새로운 지역적 맥락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아트오앤오에서는 유럽과 한국을 잇는 실질적인 연결점으로 기능하고자 더욱 밀도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안할 것이다.

참여 비영리 기관	ARTSITE SOJE (아트사이트 소제), CHAPTER II (챕터투), Jeonnam Museum of Art (전남도립미술관), SONGEUN (송은), Suwon Museum of Art (수원시립미술관) fibre/áunn museum (파이버/아운 뮤지엄), Schein Space (세인 스페이스), X Museum (엑스 뮤지엄)
첫 참여 전시자	IAH (이아), JECZA Gallery (예차 갤러리), Johyun Gallery (조현화랑), Konstantin Chaykin (콘스탄틴 샤이킨), Makasiini Contemporary (마카시니 컨템포러리), Rangi Gallery (란기 갤러리), TUCK BANGKOK (턱 방콕)
재참여 전시자	AISHO (아이쇼), A-Lounge Contemporary (에이라운지),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Artemin Gallery (아르트민 갤러리), ARTSIDE Gallery (아트사이드 갤러리), CHOI&CHOI Gallery (초이앤초이갤러리), drawingRoom (드로잉룸), Duarte Sequeira (두아트 스퀘이라), Galerie Zink (갤러리 징크), Gallery Baton (갤러리바톤), GALLERY2 (갤러리2), Gana Art (가나아트), JARILAGER Gallery (야리라거 갤러리), KICHE (기체), Lazy Mike (레이지 마이크), MISAKO & ROSEN (미사코 앤 로젠), Nicolas Krupp (니콜라스 크루프), PIBI Gallery (피비갤러리), SPACE SO (스페이스 소), ThisWeekendRoom (디스위켄드룸)

02. 참여 전시자 소개

전시자	소재지
AISHO (아이쇼)	도쿄, 홍콩
A-Lounge Contemporary (에이라운지)	서울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천안, 상하이
Artemin Gallery (아르타민 갤러리)	타이베이
ARTSIDE Gallery (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ARTSITE SOJE (아트사이트 소제)	대전
fibre/áunn museum (파이버/아운 뮤지엄)	상하이
CHOI&CHOI Gallery (초이앤초이갤러리)	퀵른, 서울
CHAPTER II (챕터투)	서울
drawingRoom (드로잉룸)	서울
Duarte Sequeira (두아르트 스퀘이라)	브라가, 서울
Galerie Zink (갤러리 징크)	발트키르헨
Gallery Baton (갤러리바톤)	서울
GALLERY2 (갤러리2)	서울, 제주
Gana Art (가나아트)	서울, 로스앤젤레스
IAH (이아)	서울
JARILAGER Gallery (야리라거 갤러리)	퀵른, 런던, 서울,
JECZA Gallery (예차 갤러리)	티미쇼아라, 부쿠레슈티
Jeonnam Museum of Art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Johyun Gallery (조현화랑)	부산, 서울
KICHE (기체)	서울
Konstantin Chaykin (콘스탄틴 샤이킨)	모스크바
Lazy Mike (레이지 마이크)	리가, 서울
Makasiini Contemporary (마카시니 컨템포러리)	헬싱키
MISAKO & ROSEN (미사코 앤 로젠)	도쿄
Nicolas Krupp (니콜라스 크루프)	바젤
PIBI Gallery (피비갤러리)	서울
Rangi Gallery (란기 갤러리)	다르에스살람
Schein Space (세인 스페이스)	항저우
SONGEUN (송은)	서울
SPACE SO (스페이스 소)	서울
Suwon Museum of Art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ThisWeekendRoom (디스위켄드룸)	서울
TUCK BANGKOK (턱 방콕)	방콕
X Museum (엑스 뮤지엄)	베이징

AISHO	
소재지 / 설립연도	홍콩, 도쿄 / 2012
참여 작가	Javier Calleja, Masaki Sato, Nanae Mitobe
참여 페어	ART OnO 2025, Armory Show, Art Basel (바젤, 마이애미, 홍콩), Frieze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갤러리. • 비주류 창작을 중심으로 국제적 아티스트와 협력하며 동아시아 및 글로벌 미술 시장을 탐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A-Lounge Contemporary (에이라운지)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6
참여 작가	강동주, 김도연, 김미경, 송지현, 윤혜진, 이코즈, 조효리, 조혜진, 한성우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ISSIMA, Frieze (서울), KI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와 기획을 통해 현 미술계의 넓은 스펙트럼을 제시. • 유망 작가 발굴과 해외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국내 작가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천안, 상하이 / 1989
참여 작가	권오상, 노상호, 안경수, 안지산, 이동욱, 임노식, 차현욱, Kohei Nawa, Kohei Yamada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 BASEL (홍콩), ART021 SHANGHAI, FIAC, FRIEZE (뉴욕, 서울), WEST BUND ART &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천안·상하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작가 발굴과 국제적 프로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갤러리. • 실험적 전시 기획과 지속적 지원을 통해 동시대 미술 현장을 이끌고 아시아 미술의 정체성을 확장. 	
Artemin Gallery (아르틴 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타이베이 / 2020
참여 작가	Crystal Lupa, Tung-Lung Wu, Yan-Yi Tseng, Yuri Zupancic
참여 페어	ART OnO 2025, EXPO CHICAGO 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을 신경 전달처럼 빠르고 섬세하게 인지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감각 중심의 운영 철학. • 일상과 예술의 연결을 탐색하며 잠재력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동시대 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 	
ARTSIDE Gallery (아트사이드 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1999
참여 작가	강준석, 권상록, 지선경, 최수인, Deng Shiqing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BU DHABI ART, ART BUSAN, KI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 방향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작가와 미술 시장의 경계를 잇는 통로의 역할을 지향. • 정형화된 전시 형식을 탈피해 차별화된 시선으로 작가와 작품을 재조명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장하는 기획을 모색. 	

ARTSITE SOJE (아트사이트 소제)	
소재지 / 설립연도	대전 / 2025
참여 작가	장세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아트·팝업·전시 등 장르의 경계를 두지 않고 예술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열린 문화 공간. • 창작자 중심의 실험적 시도를 지원하며, 전시와 프로그램,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적 담론과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확장함. 	
fibre/áunn museum (파이버/아운 뮤지엄)	
소재지 / 설립연도	상하이 2021
참여 작가	Zhang Y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 교육,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기관으로, 중국 주요 도시와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 • 또한 전시와 국제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제61회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는 중국 작가들의 개인전을 선보일 예정. 	
CHOI&CHOI Gallery (초이앤초이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쾰른 / 2012
참여 작가	구기정, 전원근, Matthew Stone
참여 페어	ART OnO 2025, Art Cologne, ASIA NOW, KIAF, POSITIONS BERLIN ART 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쾰른에서 출발해 서울과 유럽 주요 도시를 잇는 국제 아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한국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 • 한국 미술 시장에 유럽 중심의 유망 작가를 소개하며 동시대 컬렉팅 흐름을 확장하는 프로그램 운영. 	
CHAPTER II (챕터투)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6
참여 작가	노은주, 정희승, 이의성, 조호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미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업 작가로의 도약을 돕는 전시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아트 스페이스. • 열린 공간의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동시대 미술의 외연을 확장하는 복합 문화 거점. 	
drawingRoom (드로잉룸)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9
참여 작가	김미영, 사이먼 고, 이미연, 이빈소연, 이산오, 최유정
참여 페어	ART OnO 2025, FRIEZE (서울), KIAF, TAIPEI DANGD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성과 작가정신을 지향하는 현대미술의 친숙한 경험 전달을 위한 상업 전시 공간. •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과 국내외 협업을 통해 작가의 성장과 미술 시장의 다양성을 확장. 	

Duarte Sequeira (두아르트 스퀘이라)	
소재지 / 설립연도	브라가, 서울 / 2019
참여 작가	André Butzer, Edmond Brooks Beckman, Imi Knoebel, Julian Opie, Nell Brookfield, Patrick H Jones, Ted Gahl, Tom Howse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CO MADRID, ARTISSIMA, FRIEZE (서울), UNTITLED MIAMI BE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io Sequeira의 25년 레거시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차세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현대미술 갤러리. • 브라가를 거점으로 서울과 런던에서 신흥 및 기성 예술가와 협업하며 전시와 작업 발전을 지원. 	
Galerie Zink (갤러리 징크)	
소재지 / 설립연도	발트키르헨 / 1994
참여 작가	Anna Leonhardt, Cinta Vidal, Cristina Lama, Minh Dung Vu, Thao Nguyen Phan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 BASEL (마이애미, 홍콩), ART BERLIN, ART BRUSSELS, ART COLOGNE, ART PARIS, ART 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작가의 작업 발전과 장기적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며 오픈스튜디오, 레지던시 등의 작업공간 제공. • 요시토모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작가를 유럽에 선도적으로 소개, 다양한 매체 기반의 작가를 지원하는 국제 프로그램 운영. 	
Gallery Baton (갤러리바톤)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1
참여 작가	노은주, 빈우혁, 이재석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BU DHABI ART, ART BASEL (홍콩), ART BRUSSELS, ART SG, FRIEZE (런던,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 패러다임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국제 미술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외 작가를 균형 있게 소개해온 갤러리. • 아트바젤·프리즈 등 국제 아트페어 참여와 비영리 공간 '챗터투' 운영을 통해 작가의 성장과 미술 생태계 확장을 도모. 	
GALLERY2 (갤러리2)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제주 / 2007
참여 작가	추후 공지 예정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 BASEL (홍콩), FRIEZE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창작 지속성과 작품의 상업 가능성을 모색·확장하며 현대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유지하는 운영 철학. • 평창동과 제주 중선농원 두 공간을 통해 개인전 중심의 신작 발표와 중견작가 소개를 병행하며 장기적 협업을 지향. 	

Gana Art (가나아트)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로스앤젤레스 / 1983
참여 작가	Kawauchi Rikako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Paris, ART SG, FRIEZE (서울), FRIEZE MASTERS (런던), KIAF, Taipei Dangdai, Tokyo Gend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작가의 실험적 작업과 세계적 작가의 전시를 병행하며 한국 미술 문화 발전에 기여. • 신진작가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의 대중화와 국내 작가 육성을 병행. 	
IAH (이아)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22
참여 작가	정수정, Jeffly Gabriela Molina, Rui Suzuki
참여 페어	Art Jakarta, KIAF, NADA (뉴욕, 마이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서울에서 설립된 현대미술 갤러리로, 매체와 지역을 넘나드는 국내외 작가들과 협업하는 전시 공간. • 장기적 작가 협업을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운영. 	
JARILAGER Gallery (아리라거 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쾰른, 런던 / 2012
참여 작가	Michael Conrads, Roy Aurinko, Jordy Kerwick, Corrine von Lebusa, Xavier Baxter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 COLOGNE, KIAF, Untitled Miami Be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설립 이후 국제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2023년 서울 강남에 새 공간을 개관해 국내 기반을 강화. • 쾰른·코펜하겐·서울·부산·대구·마이애미 등 다양한 도시의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국제 미술 현장과의 접점을 확장. 	
JECZA Gallery (예차 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티미쇼아라, 부쿠레슈티 / 2011
참여 작가	Genti Korini, Iosif Kiraly, Laurian Popa, Marius Bercea, Paul Robas, Radu Oreian, Tincuta Marin
참여 페어	RAD Art Fair, UNTITLED ART (마이애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을 기반으로 기성 및 신진 작가를 균형 있게 소개하며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갤러리. • 2018년을 기점으로 국제적 가시성을 강화하며 유럽 미술계와 긴밀히 연결된 프로그램을 전개. 	
Jeonnam Museum of Art (전남도립미술관)	
소재지 / 설립연도	광양 / 2021
참여 작가	권승찬, 에코 누그로호(Eko Nugroho), 마리안토(Marya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작가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립미술관. •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역 문화 거점. 	

Johyun Gallery (조현화랑)	
소재지 / 설립연도	부산, 서울 / 1989
참여 작가	추후 공지 예정
참여 페어	Art Basel (마이애미, 바젤, 홍콩), FRIEZE (런던, 로스앤젤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작가들과 국제 작가들을 함께 소개하며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연결해 온 갤러리. 회화, 조각, 설치 등 폭넓은 매체의 전시를 통해 한국 미술의 국제적 확장과 담론 형성에 기여. 	
KICHE (기체)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4
참여 작가	남석우, 유지영, 윤미선, Gabrielle Kruger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 COLOGNE, KIAF, OSAKA KANSAI INTERNATIONAL ART FAIR, TAIPEI DANGDAI, WEST BUND ART &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대 국내외 작가를 중심으로 미술계 안팎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연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갤러리. 다각화된 시대의 패러다임을 연구, 세대·지역·문화권을 아우르는 작가를 지원하고 작품성과 시장성의 균형을 지향. 	
Konstantin Chaykin (콘스탄틴 샤이킨)	
소재지 / 설립연도	모스크바
참여 작가	Konstantin Chayk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인 메커니즘과 실험적 디자인을 통해 오프 오를로제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시계 브랜드. 콘스탄틴 샤이킨은 시계 제작자이자 발명가, 예술가로서 기계식 시계의 구조를 회화적 언어로 확장하는 작업 세계 구축. 	
Lazy Mike (레이지 마이크)	
소재지 / 설립연도	리가, 서울 / 2018
참여 작가	Daniel Lergon, Evgeniya Dudnikova, Filip Mirazovic, Marcin Janusz, Oper Bomse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Brussels, Expo Chicago, KIAF, NADA (뉴욕), Untitled Art Fair Mia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가와 서울을 거점으로 국경을 넘어 예술적 감각과 담론을 연결하는 국제 현대미술 갤러리. 다양한 문화권의 동시대 작가와 협업하며 해외 전시 기획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미술 시장과의 교류를 확장. 	
Makasiini Contemporary (마카시니 컨템포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헬싱키 / 2016
참여 작가	Daniel Arsham, Einari Hyvönen, Harri Puro, Jorge Galindo, Roope Itälina
참여 페어	ART SG, Expo Chicago, NADA (뉴욕), Taipei Dangdai, Untitled Art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란드 헬싱키에서 설립되어 아시아·아프리카·유럽 북미의 신진 및 중견 작가를 소개하는 국제 현대미술 갤러리. 연간 10 회의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와의 장기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전시 운영. 	

MISAKO & ROSEN (미사코 앤 로젠)

소재지 / 설립연도	도쿄 / 2006년
참여 작가	Will Rogan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ART BASEL (홍콩, 파리), Art Collaboration Kyoto, FRIEZE (서울, 로스앤젤레스), NADA (마이애미)

- 도쿄를 기반으로 31명의 국내외 작가를 대표하며 협력과 상호 지지를 지향.
-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담론을 확장하며 글로벌 미술계와의 교류를 이어감.

Nicolas Krupp (니콜라스 크루프)

소재지 / 설립연도	바젤, 2000
참여 작가	Matthew Antezzo, Nam Kim, Monica Studer & Christoph van den Berg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BASEL (바젤)

- 스위스 바젤을 기반으로 회화·조각·영상·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의 국제 동시대 작가를 소개.
- 설치와 개념미술에 적합한 전시 공간을 바탕으로 연간 전시와 아트페어 참여, 신진 작가와의 에디션 제작을 병행.

PIBI Gallery (피비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6
참여 작가	전명은, 홍근영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KIAF, UNTITLED MIAMI BEACH

- 국내외 역량 있는 작가를 조명하며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현대미술과 젊은 작가를 균형 있게 소개.
- 해외 아트페어와 자체 프로그램·출판을 통해 작가의 국제 진출과 대중 접점을 확대.

Rangi Gallery (란기 갤러리)

소재지 / 설립연도	다르에스살람 / 2020
참여 작가	Turakella Editha Gyindo, Valerie A. Amani, Theresia, Tulsi Patel

- 2020년 설립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기반의 현대미술 공간으로, 탄자니아 및 동아프리카 작가와 국제 작가를 소개.
-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을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문화 교류 허브.

Schein Space (세인 스페이스)

소재지	항저우
참여 작가	BingQing Dong

- 중국 항저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예술 프로젝트로, 거리의 상점 공간을 24시간 대중에게 열려 있는 전시 공간으로 전환해 운영
- 작가들과 협업해 장소의 특성에 반응하는 전시를 선보이며, 예술을 일상적인 도시 환경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작품과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우연한 만남의 경험을 만듦.

SONGEUN (송은)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21
참여 작가	김지선, 안정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은문화재단 운영 복합 문화공간으로, Herzog & de Meuron 설계 건축을 기반으로 한 현대미술 미술관. • 송은미술대상과 국내외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작가를 지원하고 국제 교류를 이어가는 작가 육성 및 교류 플랫폼. 	
SPACE SO (스페이스 소)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7
참여 작가	방소윤, 석예지, 이병호, 최수양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KI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큐레이팅과 아트컨설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전시 기획 공간. • 종진·신진 한국 작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프로모션과 매니지먼트를 진행. 	
Suwon Museum of Art (수원시립미술관)	
소재지 / 설립연도	수원 / 2015
참여 작가	정정엽, 김순기, 성능경, Erwin Olaf, Erwin Wurm, Claire Fontaine, 홍이현숙, 조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전시와 지역성을 반영한 기획을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 도약하는 운영 방향. • 지역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전시 기획으로 공공 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관 운영 의지. 	
ThisWeekendRoom (디스위켄드룸)	
소재지 / 설립연도	서울 / 2015
참여 작가	김한샘, 문민, 박신영, 박지나, Lucas Kaiser, Pablo Benzo, Vytautas Kumža
참여 페어	ART OnO 2024, ART OnO 2025, FRIEZE (서울), POSITIONS BERLIN ART 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조각·도예·섬유·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신진 및 중견 작가를 조명,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시 기획. • 독일·영국·일본·중국 등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미술계 교류 및 작가 발굴을 확대. 	
TUCK BANGKOK (턱 방콕)	
소재지	방콕
참여 작가	Tuck Muntarbhorn, Wolfgang Walkenstei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이자 문화 기획자인 Tuck이 구상한 방콕 패션 지구 기반의 아시아 예술·디자인 공간. • 아시아 전통 지식과 동시대 예술을 아우르며 예술과 디자인을 아시아 교류의 매개로 삼는 복합 문화 공간. 	
X Museum (엑스 뮤지엄)	
소재지 / 설립연도	베이징 / 2020
참여 작가	Rui Hua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대 중국 문화를 연구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하며, 국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미술관. • 다양한 문화적·학제적 배경을 지닌 신진 작가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와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음. 	

03. 주요 프로그램

VIP 프로그램

ART OnO 2026 x OCI Museum of Art (개막 전 프로그램)

OCI미술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아트오앤오 2026 개막에 앞서 VIP 컬렉터, 갤러리, 미술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자리이다.

현재 OCI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지알원(GR1) 작가의 전시를 중심으로 큐레이터 투어가 진행되며, 이후 자유로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전시 관람과 함께 작품과 공간,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아트오앤오 2026의 개막에 앞서 미술계 관계자들이 서로의 시선과 담론을 나누는 시간을 제공한다.

ART OnO 2026 in Jeju with OUMOS (개막 전 제주도 프로그램)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한 하이엔드 캐리어 브랜드 OUMOS와 협력하여 선보이는 본 프로그램은 제주의 로컬 문화와 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 작가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기반 창작자들과 교류하고, 제주의 동시대 예술 현장과 문화적 흐름을 입체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뮤지엄 투어, 갤러리 투어, 아티스트 스튜디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예술 현장을 폭넓게 탐방한다.

ART OnO 2026 Opening Night (개막 전 프로그램)

아트오앤오 2026 Opening Night은 비영리 미술기관 송은에서 개최되며, 페어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리셉션이다. 이번 행사는 송은에서 개최되는 전시 'SPRING FEVER'와 함께 진행된다. 'SPRING FEVER'는 송은문화재단이 새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세 명의 신진 미술가를 선정해 소개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차세대 작가를 조명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 작업과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Opening Night은 해당 전시를 중심으로 전시 관람과 네트워킹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아트오앤오 2026의 방향성과 프로그램을 미리 공유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국내외 작가, 갤러리스트, 큐레이터, VIP 컬렉터 등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이기도 하다.

ART OnO 2026 VIP Dinner

아트오앤오 2026 VIP Dinner는 Opening Night 이후 진행되는 초청 프로그램으로, 페어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내외 미술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디너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미술계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작가, 갤러리, 큐레이터, VIP 컬렉터 등 다양한 미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작품과 전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가올 페어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VIP Dinner는 단순한 만찬을 넘어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교류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Special Performance

아트오앤오 2026 개막을 기념해 성악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성악의 울림을 통해 페어의 시작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테너 오광석, 소프라노 조은희 클래식 성악가들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예술의 다양한 장르가 교차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BingQing Dong의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영상, 설치,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감정과 신체, 그리고 동시대 문화 환경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 온 작가다. 그의 퍼포먼스는 회화적 행위와 라이브 창작 과정을 결합하며, 작업이 완성되는 순간을 관객과 공유하는 실험적인 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회화와 조각, 설치 등 시각예술 중심의 아트페어 공간에 음악적 요소를 더함으로써 관객들은 작품 감상과 함께 또 다른 감각적 경험을 접할 수 있다. 공연은 개막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아트오앤오가 지향하는 예술적 교류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

ART OnO X Soho House

Soho House(소호하우스)는 1995년 영국 런던 호(Soho)에서 시작된 글로벌 프라이빗 멤버십 커뮤니티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선도하는 아티스트, 디자이너, 영화 제작자, 문화 기획자들이 모이는 독보적 문화 네트워크이다. 멤버들은 창의적 교류와 협업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각지의 문화적 흐름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한다.

아트오앤오는 이러한 Soho House와 협력하여 특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Soho House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멤버들과 아트오앤오에 참여하는 VIP 컬렉터, 미술기관, 미술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는 자리로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지닌 참여자들이 예술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이번 행사는 창작, 전시, 컬렉팅을 둘러싼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아트오앤오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글로벌 문화 커뮤니티가 만나는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OnO Bus in partnership with Ocula

‘OnO Bus in partnership with Ocula’ 프로그램은 단순한 아트페어 관람을 넘어 서울의 동시대 예술 현장을 보다 입체적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매해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갤러리와 주요 기관, 그리고 작가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하며 한국 미술계의 현재와 미래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각 공간이 지닌 고유한 전시 맥락과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미술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OnO Bus는 국제 미술 플랫폼 Ocula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갤러리스트, 기관 관계자, 작가들의 현장을 컬렉터들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예술 생태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공간이 지닌 고유한 전시 환경을 경험하며 한국 미술계의 역동적인 흐름과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된다.

이를 통해 페어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서울 전역에 펼쳐진 예술 현장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경험하도록 이끌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역동적인 동시대 미술의 장과 그 안에서 생성되는 예술적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다 깊이 있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VIP에게 제공한다.

ART OnO 2026 Finale Night

아트오앤오 2026 Finale Night은 전시 이후의 시간을 보다 풍성하게 확장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K-Food를 푸드트럭을 통해 일상의 미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아트오앤오를 찾은 VIP 관람객들에게 예술과 미식,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VIP 관람객들은 관람시간이 끝난 직후 현장에 마련된 미식을 즐기며 작품 감상의 여운을 이어갈 수 있다. 미식 문화를 함께 나누는 자리 속에서 VIP 관람객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 또한 이어지며, 음악과 함께 미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

OnO Creative Lab

OnO Creative Lab은 참여자들에게 예술적 탐구와 창작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 작가인 에드몬드 브룩스 벡만(Edmond Brooks Beckman)은 두껍게 쌓인 유화 물감과 덧칠, 조각, 자르기 등 독창적인 기법을 통해 생성과 소멸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포착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관람객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OnO Creative Lab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작가의 창작 과정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작가들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실험적이고 직관적인 창작 과정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현대 예술과의 깊이 있는 교감을 경험할 수 있다.

OnO 프로그램

Docent Program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참여 갤러리와 작가, 그리고 출품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돕기 위해 전문 도슨트가 직접 진행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트오앤오 2026에 참여한 갤러리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관람객들은 전문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주요 작품을 살펴봄에 작가의 작업 세계와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도슨트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예술적 감각을 확장하며 동시대 미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예매 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ids Program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현대미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조이뮤지엄이 함께하며, 작품 감상과 창작 활동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여 어린이들은 페어장 주요 부스를 둘러보는 도슨트 투어와 함께 갈라포라스 김의 작품을 감상하며 현대미술을 친근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전통 회화인 '국보 진열 책가도'에서 영감을 받은 캔버스 페인팅 활동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사물들을 배치하며 자신만의 작은 전시 장면을 완성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관람과 학습, 창작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현장형 프로그램으로, 아트페어 경험을 어린이 관객의 언어로 확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아트오앤오 2026 행사 기간 동안 회차별 소수 정예로 운영되며, 세부 일정은 현장 및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lk Program

아트오앤오 2026의 토크 프로그램은 미술 분야를 넘어 요리, 영상, 컬렉팅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확장된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창작 환경과 시장의 흐름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아울러 이번 토크 프로그램에는 미술기관에서의 참여와 작가, 컬렉터, 뮤직비디오 감독, 셰프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인물들이 참여해 동시대 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예술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대화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동시대 창작 환경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Special Exhibition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가 마련된다. 이번 Special Exhibition은 회화와 조각을 넘어 영상, 디지털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는 작업들을 통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서로 다른 디지털 매체와 시각적 요소들이 결합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기존 전시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기술적 매체가 예술적 표현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봄, 동시대 미술이 기술과 어떻게 교차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컬렉터와 주요 게스트를 위한 다양한 VIP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프닝 나이트와 VIP 디너를 비롯해 공연, Ocula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뮤지엄 및 갤러리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시 관람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닌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아트오앤오 2026은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한층 깊게 하며, 서울 곳곳의 예술 공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04. 파트너

아트오앤오 2026은 전시를 넘어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이 만나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 경험을 확장한다. 브랜드와 문화 파트너, F&B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해 예술, 디자인, 미식이 어우러지는 다층적인 문화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협업은 아트페어를 단순한 전시와 작품 거래의 장을 넘어 동시대 예술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며, 관람객들이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브랜드 파트너로는 **Konstantin Chaykin(콘스탄틴 샤이킨)**과 **OUMOS(오모스)**가 함께한다. **Konstantin Chaykin**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독립 워치메이커이자 예술가로, 독창적인 메커니즘과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2024년 두께 1.65mm의 초박형 기계식 시계 'ThinkKing'을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를 기록하는 등 현대 하이엔드 시계 제작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시계 제작을 넘어 회화적 상상력을 확장한 그의 아트워크를 함께 소개한다. 한편 **OUMOS**는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한 럭셔리 캐리어 브랜드로, 여행과 이동의 경험을 감각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풀어내는 브랜드이다. 이번 페어에서는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제품을 통해 예술과 라이프스타일을 연결하는 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트오앤오 2026에서는 다양한 F&B 파트너들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풍부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막걸리 브랜드 **담은(Damun)**은 생쌀 발효 방식과 탄산 제어 공법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의 막걸리를 선보이며, 식사 메뉴로는 멕시코 브랜드 **갓잇(GOD EAT)**의 시그니처 파히타와 타코,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월남쌈 전문 브랜드 **한입한쌈(One Bite Summerrolls)**이 함께한다. 디저트로는 프리미엄 산도 브랜드 **산산도도(SANSANDODO)**와 클래식 디저트 파티세리 **디클레(de Clé)**가 참여해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커피 파트너로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아이레 커피(AIRE COFFEE)**와 자체 로스팅 기반의 커피 브랜드 **선호커피(SUNHO COFFEE)**가 함께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트오앤오 프레스 문의]
press@art-ono.com

ART ON^o